

스포츠월드

[SW현장] 토탈아트 밴드 '비비스'로 돌아온 솔비, '시선집중'

기사입력 2015.09.10 오후 4:06 최종수정 2015.09.10 오후 5:06



[스포츠월드=김재원 기자] 솔비가 종합예술인으로 돌아왔다.

그것도 밴드 피터팬컴플렉스의 김경인과 주축이 되어 음악, 미술, 영상 빠짐없는 토탈아트 프로젝트 밴드 비비스로 돌아온 것. 평소 뛰어난 그림실력으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던 솔비는 이번 신개념 아트, 퍼포먼스 밴드 '비비스'를 전격결성했다. 이날 쇼케이스에는 솔비와 김경인을 비롯해 '설국열차' 편집 감독인 최민영 감독, 큐레이터 김승민이 참석했다.

솔비가 음악과 미술의 경계를 허물었다. 그동안 미술이 음악이 부속품으로 쓰인 적이 많지만 이번엔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비비스는 솔비와 김경언이 2인조 일렉트로닉 밴드로 그 어떤 밴드도 보여준 적 없는 새로운 음악과 퍼포먼스로 무장한 것. 음악을 만들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했던 기존 작업들과는 달리 자신의 음악을 들으며 미리 계획된 구성안에서 안무를 하고 느낌,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이른바 'POP 추상'의 한 장르로서 새로운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 예정이다.

음악은 가을에 나타난 밴드답게 재즈의 느낌이 물씬 풍긴다. 재즈의 베이스에 일렉트로닉 감성을 섞고 솔비의 보컬과 댄스를 얹었다. 오랜만에 돌아온 솔비는 실루엣 댄스까지 선보이며 가을의 농염함을 더했다. 솔비는 “그동안 쉬 게 아니고 미술작업을 했다. 음악도 김경언을 만나면서 음악에 대해 잘 몰랐던 점을 많이 배웠다”라며 그동안의 근황을 전했다. 이어 “저만의 시간에 미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며 “미술은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난 것 같이 너무 좋다”고 밝혔다. 또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 이야기했다. 음악과 함께 미술에 대한 작품을 계속 낼 계획이다. 이번 1집으로 음악을 들려드렸지만 앞으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며 다양한 앞으로의 계획을 알렸다. 끝으로 “어설픈 게 첫 스타트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설레는 마음으로 비비스의 첫 인사를 했다.

이어 피터팬컴플렉스의 김경언도 인사를 건넸다. “지인의 소개로 올 초 겨울에 만났다”며 첫 만남부터 소개했다. 이어 “솔비 씨가 먼저 이번 프로젝트를 구상했고 이에 음악담당으로 힘을 합하게 됐다”고 밝혔다. “(솔비의) 첫인상은 예뻐다”며 “말도 잘 통하고 재밌게 잘 작업을 했다”며 작업에 대한 소외를 고백했다.

그동안 예능에서 봐오던 장난기 넘치는 솔비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모습으로 다가온 솔비였다. 그림은 좀 더 깊이 있어졌고 김경언을 만나 음악색도 대중적이기보다 감상적으로 바뀌었다. 이벤트식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물로 가득 찬 요즘, 미술과 영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종합예술을 가미한 음악으로 돌아 온 솔비. 앞으로의 활동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jkim@sportsworldi.com

사진=비비스 페이스북

▶ **헝!이런** ▶ **HOT포토** ▶ **오늘의 이슈**